

상도콜 걷기: 사람은 떠나도 자연은 남는다

김기일*

철학자이며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걷기를 예찬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브로통은 『**걷기 예찬 Eloge de la Marche**』이라는 책에서 “걷기는 인간이 비로소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이며, 시간 속에 거처를 정하고 왕국을 세우는 경험이 된다.”라고 표현했다. 걷기를 통해 인간은 누구나 비로소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간의 주인이 되고픈 마음에 오후 연구실을 나와 젊은 시절에 올랐던 국사봉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곳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주변은 고층 아파트 단지와 상도근린공원으로 정갈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지난밤 내린 봄비로 더할 나위 없이 공기가 깨끗하고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이 열렸다. 많은 비가 내렸어도 땅은 질척거리지 않고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나무계단을 오르니 숨이 차올라 잠시 숨을 몰아쉬고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좌측 구암고등학교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낮익은 **시(詩) 한 수**를 만난다. 심훈의 「**그날이 오면**」이다.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노래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는 안타깝게도 광복의 열망을 가슴에 묻은 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시인은 떠나고 시(詩)는 남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다**. 왜 이곳에 심훈의 시가 있나 했더니 심훈의 고향이 바로 노량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문이 풀렸다. 다시 구암정을 지나 삼나무 메트길이 이어진다. 잠시 유아숲체험장에 들렀다. 십여 명 정도 되는 동네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른 놀이터가

* 숭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육중점 교수

된 느낌이다. ‘公園有處百歲保障’이란 글귀가 쓰여 있는 관동정 정자는 코로나 때문인지 접근금지 울타리가 쳐져 있다. 운동 기구 앞에서 잠시 운동을 하고 있으려니 옆에서 운동하는 머리가 희끗한 중년 아저씨의 핸드폰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수 김정호의 「**하얀 나비**」는 언제 들어도 구슬픈 노래이다. 서른네 살의 젊은 나이로 하얀 나비처럼 떠나간 그의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어제처럼 가깝게 느껴진다. **가수는 떠나도 노래는 남는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다목적 광장으로 향했다. 벌써 마음 급한 나무에는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다. 족구장이 있는 공간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에도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을 알고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족구장은 촘촘하게 말뚝이 박혀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다. 잠시 후에 멋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관악산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느 때와는 달리 손에 잡힐 듯한 풍경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멈추어진다. 3월에는 쌓인 산봉우리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장관이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국사봉중학교 울타리를 따라 나 있는 오솔길을 걸었다. 잠시 오르막길이 이어지다가 곧 정상에 다다랐다. 그네에 앉아 잠시 몸을 맡긴 채 몸과 마음을 무장 해제하고 해맑은 하늘과 흰 구름을 마주했다. 저물어가는 해를 뒤로한 채 전망대에 도착했다. **이곳은 내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상도골의 학교 주변 가장 전망 좋은 명소 중 하나이다.** 상도 골에 돌아와서 몇 년 만에 선명한 서울의 경치를 제대로 보는 순간이다. 좌측으로 장엄한 북한산이 우뚝 서 있고 시선을 우측으로 돌리면 정겨운 남산과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온다. 능선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곡선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이곳에 올라서서 발아래 펼쳐진 아등바등 세상이 우리들의 보금자리이고, 일터임을 알게 되었다. 태고 때부터 풍상이 빛은 문명의 자화상이다. 산에서 보면 도시는 산과 강으로 포근히 둘러싸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감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떠나도 자연은 남는다.